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신기록... 90억불 상회
- Bloomberg: 향후 침체 중심에 노동시장 수수께끼... 지속적인 채용에 필사적
- Bloomberg: 파월, 매파적인 어조 속에 금리 둔화 단계 설정할 듯

[미국 금융]

- Bloomberg: 내년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S&P 500은 실적 악화로 레인지 제한된다

[오일]

- CNN Business: 미 오일가 지난 1년간 최저, 휘발유가는 전월보다 6% 낮아

[글로벌 경제]

- WSJ: 미 오일가 지난 1년간 최저, 휘발유가는 전월보다 6% 낮아
- WSJ: 해양 운송비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활용법은?

[중국 경제]

- WSJ: 중국 빠른 경제 회복 힘들 듯... 코비드 제한 조치 조정과 자산 시장 부양에도 불구하고
- Bloomberg: 골드만삭스, "중국 Covid Zero 예상보다 빠른 종식 가능"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美 집값 폭락, 경제 새 '뇌관' ...경기침체 초읽기
- 동아: 영 김 "바이든 행정부에 IRA 연기 촉구할 것"
- 한경: 블룸버그 "애플, 올해 아이폰 생산 6백만대 차질 예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소매업체들, 이번 연말 시즌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
- WSJ: 식당과 식료품점, '소비자 지갑' 열기 애쓴다
- WSJ: 미 고용주들, 견고한 노동시장에 '대학 졸업장 필요성' 재고
- CNBC: 테크 기업들, 철도 파업 대비해 반도체 칩 트럭에 싣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BC: Black Friday online sales top \$9 billion in new record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신기록... 90억불 상회

- 관련 조사 기관 Adobe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자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기록적으로 높은 91억2천만달러로 나타났다.

- 이는 연간으로 비교 지난해 보다 2.3% 늘어난 규모. 구체적으로 선구매 후 지불(Buy Now Pay Later payments)는 그 전주와 비교 78% 증가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고물가와 인플레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CNBC 기사

Bloomberg: There's a Job-Market Riddle at the Heart of the Coming Recession

향후 침체 중심에 노동시장 수수께끼... 지속적인 채용에 필사적

- 대형 IT 회사와 은행들이 고용을 이미 축소하고 있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계속 채용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여전히 고용주들이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노동 부족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까 우려하고, 노동 인구와 이민자 감소로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
- 고용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강한 편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지난 9월에 4.4%로 지난 1980년 이래 가장 낮다고 OECD는 밝혔다.
- 미국의 경우 경제가 힘들어도 많은 회사들이 인력 유지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owell to Set Stage for Slowing Fed Rate Hikes Amid Hawkish Tone

파월, 매파적인 어조 속에 금리 둔화 단계 설정할 듯

-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연준 공식 회의인 13일과 14일 전에 이번주 금요일 워싱턴 DC의 Brookings Institution 행사에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에 나선다.
- 이 행사에서 파월은 물론 미국인들에게 내년에도 인플레이와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상기시키겠지만, 연준이 다음 달인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는 기대감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 즉, 이미 4차례 연속 0.75% 금리 인상 후에 이번 12월에는 0.5% 인상을 시사한 연준 관리들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둔화'로 기대된다.
- 선물 시장 가격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12월 금리 인상 폭 둔화로 현재의 금리 3.75%~4.00%가 내년에 5% 피크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agflation Will Rule 2023, Keeping Stocks in Peril
내년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S&P 500은 실적 악화로 레인지 제한된다

- 최근 MLIV Pulse survey가 388명의 투자자들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가능성은 내년에 글로벌 차원에서 고물가에 성장 둔화요, 두 번째 가능성은 내년에 디플레이션 경기 둔화라는 것.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고물가에 경기 회복이라고 응답했다.
- 달러도 지금부터 다음 달에 약세가 된다고 응답자 60%는 밝혔고, 내년에 도 급격하지는 않지만, 점차 약세 추세를 Kornitzer Capital Management 측은 전망했다.
- 응답자의 반 정도는 S&P 500가 현재와 비교해 10%보다 좀 낮거나 높은 범위에서 내년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CNN Business: US oil prices hit lowest level in nearly a year. Gas is down 6% in a month

미 오일가 지난 1년간 최저, 휘발유가는 전월보다 6% 낮아

- 미국 오일 가격이 지난해 12월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코비드 봉쇄령 정책에 대한 저항이 수요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서부 텍사스 오일 선물가는 배럴당 현재 74불, 브렌트유 선물가는 81달러로 올해 1월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이다.
- 글로벌 오일가는 지난 6월 이래 35% 감소했다.
- 또한 원유 가격이 미국 휘발유 가격은 결정하는 상황에서 현재 갤런당 3달러 55센트로 지난달보다 5.7% 감소했다.

CNN 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ized Supply Chain Brings More-Turbulent Food Prices
글로벌화된 공급망으로 식품 가격 요동치며 상승

- 수십년간 글로벌화 때문에 식품 공급의 다양화와 가격이 하락했었다. 그러나 현재 팬데믹과 러시아 전쟁, 다른 글로벌 혼란이 어떻게 복잡한 공급망을 또한 더 혼란스러운 가격을 만들었는지 보여준다.
- 식품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소비자 물가보다 높다. 물론 최근 몇주간의 식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바로 전보다 25% 높다고 United Nations Food Price Index는 밝히고 있다.
- 물론 가격에 여파를 준 팬데믹과 러시아 정책, 곡물가가 수그러들고 있고 공급업자들도 더 가까운 곳에서 소싱을 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 식품 가격은 더욱 더 변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식품과 음료수는 그 원료를 해외로부터 가져온다. 미국 피자의 토핑 햄은 스케일, 소스는 멕시코, 스카치 위스키 맥주는 우크라이나산이다. 글로벌 전체 식품 수출의 4분의 1이 모두 외국산이라고 WTO는 말한다.

WSJ 기사

WSJ: The Logistics and Supply-Chain Slowdown Has Begun. Here's How to Take Advantage.

해양 운송비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활용법은?

해양 운송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운송과 물류 관련 회사들 입장에서 팁은 무엇일까?

1. 우선 새로운 창고 수용 능력을 감안해 덜컥 서명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공실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유 창고 공간 감소가 바닥을 찻다는 신호가 커지고 있다. 아마존도 남은 창고 공간은 서브리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균형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혹시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남캘리포니아 항문 가까운 시장이 예를 들면 현재 공실률이 여전히 거의 1% 수준이다.
2. 배송이나 운송 옵션을 늘려라. 공급망 매니저들은 지난 2년 가까이 해당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귀사의 전체 팔렛을 한 베스켓에 놓아두기 보다는 여러 개의 캐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원자재 시장을 주의하라. 지난 2년간 원자재 가격이 심하게 요동쳤다. 그런 원자재 시장의 안정성은 공급망의 방향이나 기업 비용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WSJ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s Economy Faces Challenges Despite Latest Moves to Stimulate Growth

중국 빠른 경제 회복 힘들 듯... 코비드 제한 조치 조정과 자산 시장 부양에도 불구하고

- 중국은 코비드 통제 조정과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내년에 강한 반등을 바라고 있다.
-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기를 그런 조치들인 시진핑의 광범위한 정책 변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최근 공산당 전당대회의 메시지는 성장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급 자족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려는 시진핑의 입장만 공고히 할 뿐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을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조만간에 팬데믹 때의 강한 확장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서구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일부 도시들은 감염 건수 급증 탓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팬데믹과 더불어의 삶'은 힘들 것이라는 것. 주택 판매도 모기지율 감소와 다른 유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Goldman Says China May End Covid Zero Earlier Than Expected 골드만삭스, “중국 Covid Zero 예상보다 빠른 종식 가능”

-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2023년 2분기 이전에 “Covid Zero” 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30%라고 전망하며, 봉쇄 정책에서의 혼란스러운 출구(“disorderly exit”)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추운 날씨로 인해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중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면서 지난 주말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제한 조치 대항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3.3%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美 집값 폭락, 경제 새 '뇌관' ...경기침체 초읽기
- 동아: 영 김 “바이든 행정부에 IRA 연기 촉구할 것”
- 한경: 블룸버그 "애플, 올해 아이폰 생산 6백만대 차질 예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Why Retailers Are Trying Extra Hard to Woo Holiday Shoppers

소매업체들, 이번 연말 시즌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

- 소매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연말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불경기 전에 가능한 많이 팔기 위해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파격적인 할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 현재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의 저축과 노동시장 강세에 힘입어 지출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며 불경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분석가들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4분기에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가계 저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준에 따르면 올해 중반까지 미국인들은 약 1조 7천억 달러의 추가 저축 예산을 가지고 있다.
- 하지만 뉴욕 연준에 따르면 3분기 신용카드 밸런스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20여년 만에 가장 큰 증가로,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점점 신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NYT 기사

WSJ: Restaurants, Grocery Stores Battle Over Consumers' Stretched Dollars

식당과 식료품점, '소비자 지갑' 열기 애쓴다

- 소비자들이 점차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점들은 더 많은 저가 상품을 판매하고 웬디스, 파파존스 등의 식당들은 할인을 제공하며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10월에 연간 기준 12.4% 상승했고, 음식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6%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NP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식을 할 경우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3.4배의 비용이 든다.
-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외식비와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식료품점들은 빵과 시리얼 등 외식의 저렴한 대안 상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주요 외식업체들 역시 프로모션 상품을 내놓으며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의 기대 사이에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Employers Rethink Need for College Degrees in Tight Labor Market

미 고용주들, 견고한 노동시장에 '대학 졸업장 필요성' 재고

- 노동시장의 강세가 더 많은 고용주들이 고임금 일자리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대학 학위의 필요성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 델타, 월마트 등의 기업들은 특정 직책에 대한 교육 요건을 줄이고 기술과 경험에 집중한 채용으로 전환했다.
- Burning Glass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월 미국에서 최소 학사 학위가 필요한 고용 공고는 41%로, 2019년 초 46%보다 감소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직장 내의 인종적 격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 한편 4년제 대학 학위 소지자의 평생 수입은 280만 달러로 고졸 근로자의 160만 달러보다 더 많다. 그러나 미국의 4천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총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다.
- 또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사람들은 백인과 아시아인보다 대학 학위를 가질 가능성이 적다. 이에 비대졸자들의 노동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정부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다.

WSJ 기사

CNBC: Tech companies begin rerouting critical chip supplies to trucks with rail strike looming

테크 기업들, 철도 파업 대비해 반도체 칩 트럭에 싣는다

- 물류 기업 DHL에 따르면 첨단 기술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공급될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테크 기업들은 12월 전국적인 화물 철도 파업을 앞두고 화물 운송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DHL은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이 줄어들면서 지난 9월 철도 파업이 처음 진행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트럭 용량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또 철도 파업으로 인해 물류가 지연되면 화주들이 철도에 지불하는 연체료가 가중된다고 경고했다.
- 한편 델러스와 포트워스, 엘파소 등에서 화물 혼잡이 예상된다. 노조와 철도회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월 9일부터 철도 파업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바닥서 13% 반등한 美증시...4분기 실적 '역성장' 여부 관건

최근 미국 증시가 바닥(S&P500 지수의 연저점 기준)에서 13% 가까이 반등했지만,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미국 S&P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전망이라고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S&P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이 역성장한다면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2020년 3분기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 된다. 지난 6월 말만 해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S&P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이 9%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5개월 만에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S&P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S&P500 기업 중 지금까지 97%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